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159

JCCT 2022-5-19

영화 《그린북》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토의를 통한 해결 방안

Racism in the movie 《Green Book》 and solutions through discussion

박주은*

Joo Eun Park*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영화 《그린북》에 나타난 인종주의를 살펴보고 학생들과 토의를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인종차별 사회 속에서 흑인 피아니스트 쉐리 박사와 운전기사 토니와 좋은 유대를 맺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2021년 2학기 S 대학교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 수업 시간에 다룬 주제 중 하나인 인종 주제를 활용하였다. 왜냐하면 인종주의가 발생한 이래로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인종차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종주의와 상호 문화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영화에 나타난 인종차별 사례와 현재 발생한 인종차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인종주의 차별 역사는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종교적 갈등으로 발생하였고 백인 우월주의에 기인하였다. 이 인종차별 해결 방안으로 국제기구는 상호문화교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한 이유는 인터넷과 함께 태어나고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토의를 활용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학생들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에 연구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영화 《그린북》, 인종주의, 상호문화교육, 토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acism in the movie 《Green Book》 and to find solutions to racism through discussion with students. Set in 1962 in the United States, this film depicts the process of forming a good bond with the black pianist Dr. Shirley and the driver Tony in a racist society. This study utilized the subject of race, one of the subjects covered in the humanities class in the global era of S University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1. This is because, since the outbreak of racism, the problem of racism has continued to arise in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situation. Therefore, the researcher looked at racism and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looked at cases of racism in movies and cases of racism that have occurred today. The history of racism and discrimination dates back to medieval Europe and was caused by religious conflicts and was attributed to white supremacy. As a solution to this racial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ggested intercultural education. And the reason why film was used in this study is because it aims to provoke students' interest and motivation for learning by targeting first-year university students called the digital native generation who were born and grew up with the Internet. In this study, students' solutions to racism were presented using discussion, and then the researcher's solu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Movie 《Green Book》, Racism, Intercultural Education, Discussion

*정회원,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부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3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31, 2022 / Revised: April 15, 2022
Accepted: April 20, 2022
*Corresponding Author: pjepark@smu.ac.kr
Dept. of English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Korea

I. 서론

세계화 시대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인종차별은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표면적으로 사라진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오고, S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을 글로벌지역학부의 공통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다. 이 과목은 팀티칭으로 두 명의 교수자가 담당하고 6개 주제 중 3개 주제씩 각자 지도하고 있다. 교수자가 담당한 주제는 구체적으로 세계화 시대의 인간, 인종과 종교, 글로벌 시대의 문화 예술과 문화산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제 중 하나인 인종을 선정하였다. 우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의 해결 방안인 상호문화주의를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1960년대 인종차별이 만연한 미국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 《그린북》(Green Book)에 나타난 인종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찾아 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화 감상 후 학생들의 느낀 점을 주관적 서술로 나타내고 현대에 나타난 인종차별 사례를 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지도한 후에 토의를 통하여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을 서술하고, 연구자만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인종주의와 상호문화교육

1.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국외나 국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페리 플로이드(George Ferris Floyd) 사망 사건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파우더 호른에서 발생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거리로 나와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BLM)라고 외쳤고 인종차별 저항 시위는 미 전국에서 100일을 넘겨 장기화하고 있다 [1].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경찰관 데릭 쇼빈(Derek Chauvin)은 2021년 6월이 되어서야 2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터 케이힐 판사는 쇼빈에게 중형을

내린 이유로 그가 자신의 직무가 가진 신뢰와 권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플로이드를 특별히 잔인하게 다룬 것을 꼽았다 [2]. 이와 같이 인종차별로 인한 사건과 피해는 과거에도 존재 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인종차별의 역사는 4세기 중세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 유럽에서 신학적 반유대주의가 발생하고 유대인을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이며 주님을 살해한 자들로 간주하여 기독교 설교자들이 이 주장을 퍼뜨렸다. 8세기에 기독교도들이 유대인에 대한 심한 적대감으로 나타났고 중세에 와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 자산을 약탈하고 흑사병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다가 군주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다.

그 이후 18세기 유럽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인디언과 아프리카인들을 야생 원숭이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미국에서 1860년대에 남부의 돈 많은 백인 남성들은 몰라토(mulato 흑백 혼혈아) 첩을 두었고, 백인과 흑인의 성적 결합을 금지시켰다. 특히 1883년 미 대법원은 개인적인 접촉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관계에서든 흑백 분리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남부 주들이 공공시설에서 인종 분리를 확대하였고 인종 간 결혼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짐 크로우(Jim Crow)라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정책 체제의 시대가 되었다. 짐 크로우는 무대에서 백인 배우들이 흑인을 우습게 묘사한 데에서 나온 이름으로 게으르고 멍청하고 어리개 같으면서도 마냥 좋아하기만 하는 캐릭터였다 [3]. 이는 인종주의에 근거한다.

인종주의는 인종 사이에 유전적 우열이 있다고 하여 인종적 멸시, 박해, 차별 따위를 정당화하는 주의이다. 순혈주의와 인종차별을 낳으며, 나치스의 반유대주의, 백인의 흑인 차별 따위가 전형적인 예이다 [4].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인종주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생물학적 특징을 ‘본질적인 요소’로 보게 만들어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신념 체계이다. 모든 개인이 가진 특정한 인종적 특징을 경제적 자원, 문화적 권리, 인권에서 차등적 분배를 정당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인종주의이다. 한 마디로 이 인종주의는 피부색으로 인간을 구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 인종주의는 고정된 현상이 아니고 사회 속에서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5].

경제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사지(Gossage) 비누 광고에서 '유색'이라는 것을 더러움과 같은 것으로 묘사하면서 은유적으로든 문자 그대로든 비누를 규칙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더러움을 없애고 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4]. 이는 피부색으로만 인간을 판단하여 흰색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종주의는 거의 19세기 말기에 만들어진 시대적인 소명을 일으켜보려는 미국 역사학의 애국주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한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도라는 점은 역사학의 시선이고 미국 국민주의 역사를 통한 남북 화합의 진로를 찾기 위해 선택한 것이 바로 인종주의인 것이다 [6]. 역사가들은 백인들이 미국 사회의 지배 계급과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흑인의 열등성을 강조하는 인종주의를 옹호한 것으로 평한다. 이 인종주의를 백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다 [7]. 이 의미는 미국,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인종주의, 다른 인종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다는 것이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종주의는 존재하고 있다.

2. 인종주의

세계화는 교통과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지구촌을 탄생시켰다. 이 변화로 이주가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고 전 세계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특히 국제 이주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으로 독일, 러시아 등이다. 국제이주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생기고 인종차별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는 상호문화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상호문화교육은 독일에서 1970년대 후반에 통용되고 다른 국가의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개별 문화의 고유함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보편성을 제시하여 자국의 문화와 외국의 언어, 문화, 종교에 대해서 선입관이 없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로 4개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학습으로 감정이입 능력, 관용, 갈등 해결 능력, 협동심,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극복을 목표로 한다. 셋째, 역사, 사회적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획득하려는 목표를 추구한다. 넷째, 정치교육이 포함된다 [8]. 이 목표는 타

문화에 대하여 상하관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문화 자체를 동등이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상호문화교육을 확산시켜 온 단체는 국제기구이다. 이 국제기구는 유럽 평의회, 유럽연합, 유네스코 등이다. 1970년대에 유럽 평의회가 상호문화교육을 가장 먼저 권장하였고, 그 방법을 지침서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유네스코는 상호문화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9].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평의회는 인종주의, 차별, 외국인 혐오증 등을 설명하고 상호문화교육 활동을 제시하였다. 둘째, 유럽연합의 자문기관인 유럽위원회는 상호문화교육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 기술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센터를 설립하여 인종주의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국의 반인종주의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9]. 셋째, 유네스코는 상호문화교육의 원칙으로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고,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적 지식, 태도, 기술을 제공한다 [10].

이와 같은 국제기구의 상호문화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며 인종차별이 사라지도록 노력하는 일종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상호문화교육은 지구촌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다른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하는 교육이다.

III. 영화 《그린북》에 나타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해결 방안

영화 《그린북》은 본래 뉴욕시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흑인 빅토 그린(Victor Green)이 『흑인 운전자를 위한 그린 북』라는 이름으로 1936년 출간된 도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 책은 자신의 이름에서 책 제목을 따오면서 표지도 녹색으로 만들었다. 미국 CBS 방송은 이 책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개방되는 숙소, 식당, 주유소들을 소개하였고 당시 비인간적 인종차별을 겪은 여행 세대에게 큰 위안을 제공했다고 평했다. 78세 흑인은 인터뷰에서 아버지랑 주유소에 들르면 팔

기름이 없다며 흑인을 거부한 경험이 있었고 일몰 후 백인의 공격이 자행되는 ‘일몰 마을’도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11]. 앞서 설명한 짐 크로우 법과 인종 분리 정책이 견고한 시대에 흑인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책이지만, 흑인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여행길을 모아 제공함으로써 흑백 분리를 당연시하고 인종주의 근절에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은 백인들을 만족스럽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 영화는 1962년 미국을 배경으로 피아니스트 도날드 셸리(Donald Shirley)와 입담과 주먹만 믿고 살아가던 토니 발레롱가(Tony Vallelonga)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셸리는 토니를 운전기사로 고용하여 미국 남부 투어 공연을 같이 다니며 인종차별을 겪고 서로를 이해하고 각자의 부족하고 힘든 점을 채워 주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2019년에 개봉하였고, 91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본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12].

이 영화에 대해 흑백간 대립을 음악으로 분석하여, 클래식 음악은 백인의 문화적 전유물, 클래식 이외의 음악은 흑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급한 대중문화를 상징한다고 평하였다 [13]. 한 마디로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나타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인종차별 사례가 나타난 영화 장면을 분석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사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셸리와 토니가 밤에 이동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는 장면이다. 경찰은 셸리를 유치장에 가두고, 셸리가 감금된 이유를 묻자 경찰은 “헤가 잤는데 검둥이가 밖으로 기어 나왔잖아.”라고 답한다. 앞서 설명한 짐 크로우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되었던 미국의 주법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간 분리하도록 하였으며, 이 인종 분리로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경제적 후원, 주거지 등 열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백인들은 유색인종에게 일몰 전까지 마을을 떠나라는 포스터를 가게 밖에 걸어 놓을 정도였고 [11] 경찰의 말처럼 일몰 후 흑인들의 이동을 금지시킬 정도의 인종차별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찰의 검문은 2013년 통계에서도 운전하는 중에 이유 없이 경찰의 검문을 받을 확률은 25세 이하의 흑인이 28%, 25세 이하의 백인이 12.5%라고 한다 [14]. 흑인에 대한 경찰 검문은 《그린북》영화 시대적 배경인 1962년에도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이러한 검문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 인기 코미디언이 공항에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을 당했다 [15]. 이는 에세드(Essed)에 의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일상적 인종주의’라 할 수 있다. 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며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정착되어 있다 [16]. 이와 같은 일상적 인종주의는 미국과 영국,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은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생물학적 이유보다는 출신국 경제 수준이나 말투 같은 일상적 이유로 발생한다. 경기도 인종차별 실태 조사에서 보듯이 외국인에 대한 무시, 비하, 모욕, 혐오, 따돌림, 성희롱은 학교, 병원, 대중교통, 민간기업 등의 전 영역에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인종차별의 근거로 이주 노동자만 강제 조사하고 외국인을 감염병 확진자로 낙인찍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킨다 [17]. 이와 같이 일상적 인종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고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미국 남부의 주인 엘라베마주에서 셸리는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갔는데 호텔 지배인으로부터 창고처럼 협소한 공간을 대기실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는 장면이다. 심지어 피아노 연주자인 셸리가 공연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수 없다는 호텔의 전통 운영 방침을 명분으로 레스토랑 출입까지 저지 당한다. 이에 셸리는 “돈 많은 백인은 피아노를 치라고 나에게 돈을 주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나도 똑같은 감둥이일 뿐이야.”라고 말한다. 이는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백인이 흑인 셸리의 피아노 연주에 경제적 대가를 치루지만, 공연을 마치고 난 셸리에게는 레스토랑 출입도 저지당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셸리 자신도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고급문화란 귀족의 문화적 전통을 이어받아 소수의 지식이 생산하고 즐기는 문화로 연극, 발레, 클래식 음악, 순수미술 등이 포함된다 [18].

이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목격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미국의 한 고급 식당이 복장 규정을 이유로 흑인 모자의 입장을 거부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 마사 그랜트

(Marsha Grant)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레스토랑 그룹은 사과를 하고 복장 규정이 차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인과 동반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복장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9].

또 하나의 예를 들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흑인 남성 브랜드 워드(Brandm Word)가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였다 [20]. 논란이 되자 스타벅스는 직원들의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사례들처럼 특정 장소가 아닌 일상적으로 접하는 장소인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출입 금지와 화장실 사용 금지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조차도 해결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 기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토니의 집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장면이다. 토니는 이탈리아 이민자 출신의 백인으로 뉴욕 브롱스의 나이트클럽 종업원이자 지저분한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이며, 인종차별주의자이다. 토니는 집 수리를 하러 온 흑인들이 마신 컵을 버릴 정도이고, 토니의 장인어른은 흑인에게 “깜둥이”라 부르고 딸과 흑인 기사를 같이 한 집에 두었다고 토니에게 화를 낸다. 반면에 토니의 아내는 토니가 버린 물컵을 다시 꺼내는 모습으로 유색인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박사 설리와 남편 토니가 같이 여행을 하는 동안 설리가 토니에게 편지 쓰기를 가르쳐 주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

이와 같이 영화 《그린북》은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에도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보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려는 노력과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인문학 수업 시간에 대학교 1학년들이 수업 시간에 토의를 통해 제시한 인종차별 해결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연구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의 의식 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이 영화를 통해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토의를 통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수자와 학생들이 제시한 인종차별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표 1. 학생들의 인종차별 해결 방안
 Table 1. A Solution to Racism among Students

학생 A	국가적 차원에서 혐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서로 다른 인종이 융화될 수 있는 기념일을 지정한다.
학생 B	백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동일 범죄의 동일 처벌 등의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생 C	다문화 교육 실시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캠페인 또는 사회 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학생 D	개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
학생 E	인종차별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유명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공식 트위터에 “우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학생 F	이주민 당사자의 사회 참여, 미디어 채널 등을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학생 G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품위만이 이긴다는 설리의 대사를 통해 인종차별 문제들은 물리적 폭력을 가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별을 갖게 되는 편견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첫째, 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백인 경찰관의 강압 행위로 숨지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이다. 경찰관이 플로이드의 목덜미를 무릎으로 눌러 그가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하였다 [21]. 이외에도 미국 경찰이 마약 소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 흑인 남성을 잡아 과도하게 진압한 사건이 있었다 [22].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 경찰의 인종차별에 대한 과잉 폭력 문제를 보여준다.

둘째, 미국 루이지애나 주에서 ‘백인 전용 묘지’라는 내부 원칙적 이유를 들어 한 흑인 유족들의 묘지 구입을 거절하였다 [23]. 이 사례는 죽어서도 백인과 흑인의 공간 분리를 한다는 문제를 보여준다.

셋째, 영국 보고서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했으나 2020년 3월 기준 경찰이 기록한 영국 내 중요범죄는 9년 전과 비교해 약 131% 증가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며 인종차별 범죄가 증가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데이터를 언급하지 않았다 [24]. 이는 현재에도 영국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에 출연했던 필리핀 배우 크리스찬 라가힐(Christian Lagahill)이 마을버스 안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부터 얼굴에 양배추를 맞았다. 그 여성은 그에게 “한국인이 아니니 버스에서 내려라”라고 말하였다 [25]. 이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인종차별을 보여 준 것이다.

이외에도 외국과 국내의 인종차별의 사례는 많았다. 연구자는 이 인종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기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상호문화교육을 확산시켜야 한다. 지구촌은 세계화로 인해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는 다양한 민족을 만나 생활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타민족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어릴 때부터 평생 교육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구촌 사회가 겪고 있는 공통 문제의 해결,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생 방안의 모색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을 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는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 교육 방법으로 인종차별 사례 조사와 토의, 역할극을 활용 제시한다. 특히 역할극은 자신이 타민족의 입장이 되어 타민족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제도적 인종주의’는 사회적·정치적 제도와 조직 안에서 표현되는 인종주의를 뜻한다. 특정 조직의 일상적 실천이나 절차가 소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명백하거나 은밀한 형태의 차별을 만들어내는 인종주의 역시 제도적 인종주의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착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조직과 제도상의 규칙, 보상, 실천 행위 등을 의미한다 [26]. 미국 제임스 버드 주니어(James Byrd Jr) 혐오 방지법은 흑인인 버드 주니어가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혐오 범죄를 당한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 입법화되었고, 인종, 피부색, 종교, 본적을 이유로 폭력적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힌 자를 범죄화하였다 [27]. 이와 같이 법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과잉 폭력 문제를 겪는 미국 경찰의 구성도 인종과 성별을 다양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 병원, 방송 매체, 노동 현장 등에서도 인종과 성별을 다양화해서 모두 평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내에서는 2021년 박주민 의원 등 13명이 제시한 발의 안 내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용모, 유전 정보,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하게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발의된 차별 금지법이다 [28]. 이와 같이 법제화를 실시하여 제도적 인종주의를 없애야 한다.

셋째, 학술계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발표와 연구가 확산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사례, 각 나라마다 제시하는 방안을 소개하여 이 분야의 의식 전환 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종차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종주의와 상호문화교육에 대해서 살펴 본 후에 영화 《그린북》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를 세 장면으로 분석하였고, 현재 일상 생활에서 나타난 인종차별 사례를 들었다. 인종주의는 중세 종교적 갈등으로 시작하여 유전적 우열을 중시하고 피부색으로 판단하는 백인 우월주의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상호문화교육은 인종차별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종차별 사례를 소개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린북》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는 첫째, 셜리와 토니가 피아노 연주를 위해 밤에 셜리의 공연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셜리가 흑인이기 때문에 경찰에 잡혀 감옥에 가게 되는 장면에서 나타났다. 이 장면은 흑인의 야간 통행금지법을 보여주었다. 이 사례는 현재까지도 미국 경찰이 불시 검문을 백인보다 흑인 검문을 많이 한다는 인종차별을 보여주었다. 둘째, 미국 남부의 주인 앨라배마주에서 셜리는 피아노 연주를 하러 갔는데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지배인으로부터 창고처럼 협소한 공간을 대기실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흑인과 백인의 공간 분리를 보여 준다. 셜리의 연주를 듣는 사람은 백인이고, 이 연주가 끝난 후에는 셜리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못하도록 하는

호텔 운영 방침에 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 사례는 현재 북장 규정과 묘지 구입 시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는 것처럼 흑인과 백인의 공간 분리 규정이 엄격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셋째, 토니의 집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 장면이다. 토니는 집 수리를 하러 온 흑인들이 마신 컵을 버릴 정도이고 토니의 장인어른은 흑인에게 “깜둥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인종차별주의자이다. 그러나 토니는 설리가 당하는 인종차별을 목격하고 설리를 지켜 주는 행동을 할 정도로 변모해 가며 설리로부터 글쓰기를 배워 아내에게 편지까지 쓸 수 있는 도움을 받는다. 이 영화에 나타난 일상적 인종주의는 현재에도 일상생활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방법은 포괄적인 의미로 개인적 의식 변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문화교육을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실시한다. 둘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인종차별 금지법으로 타민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학술계에서 인종차별에 관한 발표와 연구가 확산되어야 한다. 제시한 방법은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앞으로 지구촌에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협력에 관한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References

- [1]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009071513001>
- [2]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620787>
- [3] Ali Rattansi, *Multicultur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4]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e6e6283fe4c4d23a0a7e520ae03b311>
- [5] Fox, J., “The use of racism: Whitewashing the new Europeans in the UK,”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6, No. 11, pp. 1871-1889, 2013.
- [6] Hong Seuk Yang, “The Historians’ Turning Sectionalism to Racism in the late 19th Century,” *World History and Culture*, No. 52, pp. 269-301, 2019.
- [7] Kung Tae Park, *Racism*, Seoul: Book World, 2009.
- [8] Young Kun Tschang, “A Study on the Goals and Tasks of Mutual Culture Educ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orean-German Education*, pp. 1-20, 2001.
- [9] Han Up Jang,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cultural Education as a Managerial Model of Cultural Diversity: Focused on intercultural educ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24, No. 3, pp. 19-38, 2019.
- [10]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47878>
- [11]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7/03/143578>
- [12] <https://time.com/5527806/green-book-movie-controversy>
- [13] Soo Hwan Ahn, “Opposition as a Hermeneutic Cue as Seen in Films, Green Book, Parasite, and The Two Popes,” *Journal of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Vol. 24, No. 1, pp. 183-208, 2021.
- [14] <https://washingtonmonthly.com/2013/12/19/driving-while-black>
- [15]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KR20210422088400009>
- [16] Eun Young Hong, “The Direction of Globalization Education through the Study of Criticism of Racism and Whiteness Studie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9, No. 1, pp. 1-23, 2014.
- [1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413470001510>
- [18] Hebert J.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Taste*, New York: Basic Books, 1999.
- [19]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653224>
-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45814#home>
- [21]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005271203001#c2b>
- [22]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26704
- [23]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5869293>
- [2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idxno=216575>
- [25] https://www.ytn.co.kr/_ln/0106_202111011025070431
- [26] Flearas Augie, *Racism in a Multicultural Canada: Paradoxes, Politics, and Resistance*, Waterloo: Wil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2014.
- [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6201651064998>
- [28]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2249_34866.html